

“교육은 지식기반 경제의 최고 자산…국정우선순위 NO.1 돼야

신년 인터뷰

사 공 일

한국사회를 말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시장중심 경제이론의 ‘석학’이자, 우리나라 경제 관료의 ‘전설’이다. 전두환정부 때인 1983년부터 1987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 경제 수석비서관을 지내 국내 최장수 경제수석 기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5공화국 마지막 재무부 장관에 이어 노태우정부 초대 재무부 장관도 지냈다. 김대중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로 활동했고, 노무현정부도 대통령 경제원로자문회의 위원으로 그를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이었고, 대통령직속 국가 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사공일의 경제이론’과 정통 경제관료로서의 책임감 있는 능력을 필요로 했던 셈이다.

1993년 민간연구원으로 설립한 세계경제연구원을 23년 동안 이끌며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해외의 석학과 고위 정책담당자, 주요 국제기구 최고위 인사, 글로벌 기업 CEO들과 교류하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이 연구원의 명예이사장이다. ‘영남일보’는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 무역센터빌딩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사공일 이사장을 만나 2016년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과 대구·경북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받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부터 반세기 동안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 ‘상전벽해’의 발전을 이룩했죠.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까. 당시 미국의 원조당국마저 한국을 경제 발전에 관한 희망이 없는 ‘바스켓케이스(basket case)’로 봤어요. 그랬던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와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원이 됐어요. 하지만 정치·사회·문화와 국민의식 수준 면에서 물질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모두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칙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먼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해야 하나요.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교육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의 교육체계론 안 되고 교육개혁이 이뤄져야죠.”

“평소에도 교육개혁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이 국정의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제도를 만들어

1인 국민소득 3만불 앞섰지만 사회·정치·문화적 국민의식은 물질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문제 나오고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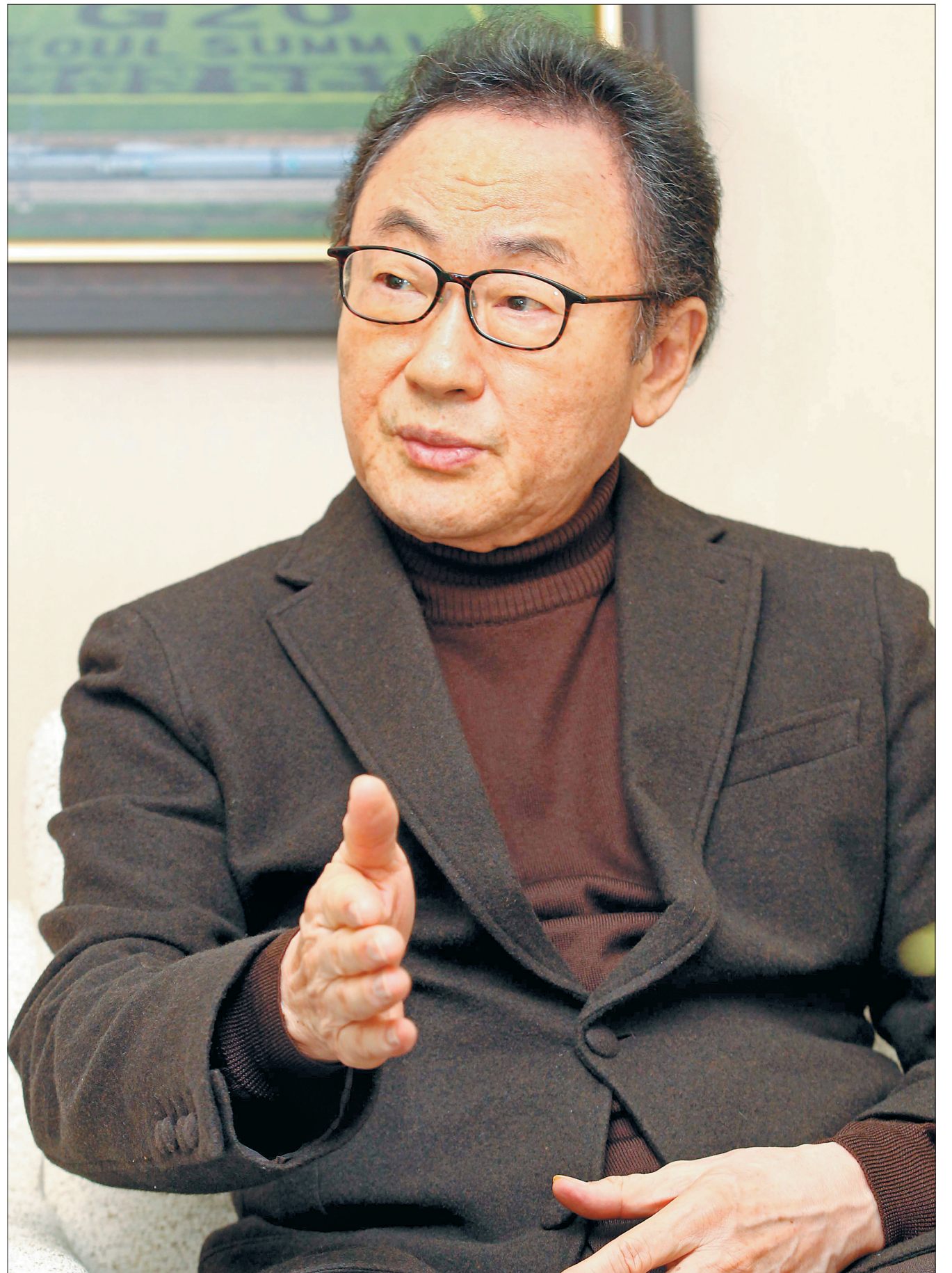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회에선 세대간 富·소득 재분배 악화… 가장 기본적 해법은 교육개혁

야 해요. 특히 공교육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세대 간 소득 분배가 악화됩니다.”

사공일 이사장은 경제 전문가지만 언론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교육개혁을 강조해 왔다. 교육은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물론 DNA를 통해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어서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교육열은 세계 최고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양질의 교육 공급만 제대로 해주면 된다. 수요는 넘쳐난다. 그래서 국정 우선순위 NO.1도 교육이고, NO.10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개혁에 노동·금융·공공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잡았는데.

“정부가 4대 개혁 분야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잡은 건 적절하다고 봅니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12월30일 서울 무역센터빌딩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 그러나 잘 추진돼야죠. 단기적으로는 노동개혁이 중요해요. 청년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실업이 늘어나고 임시직·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시장 개혁 없이는 안 됩니다. 전체 근로자 10% 수준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규직기득권이 과보호되면 새로운 근로

자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비정규직·임시직이 늘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자는 건 100% 옳은 말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에서도 해외의 노동개혁 사례 연구도 많이 했을 텐데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독일도 1990년대 들어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그 중요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지가 강한 사회민주당의 슈뢰더 총리가 2003년 노동시장을 개혁했어요. 그 덕분에 현재 독일 경제가 잘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개혁이 필요 한 겁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0년 군위
△경북고, 서울대 상대, UCLA 경제학 석사, UCLA 경제학 박사
△뉴욕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재정금융실장·부원장, 산업연구원(KIET) 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재무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듭니다.

丙申年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복되고 즐거운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최혁준 외 회원일동

丙申年 새해福 많이 받으십시오

모로래 시민행복, 반도르시 창조대구

회장 류승백
부회장 안원옥, 조진해, 정정자, 김형준, 이정숙,
강재현, 장식환, 정순진, 김의식
사무총장 김선명 외 회원일동

사단법인 **大邱廣域市 議政會**